



3월 소통의 날 혁신도정상 시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열린 3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도정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혁신도정상을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전주·고창, ‘기업하기 좋은 전북’ 최우수

전주시·고창군, 道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평가 최우수 영예
인구 7만 기준으로 나눠 도내 6개 시군 선정
국비, 규제개혁, 산단 활성화 등 성과 탁월
선정 시군 재정 인센티브 2억 부여 및 우수사례 확산

전북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전주시와 고창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했으며, 인구 규모(7만명 이상·미만)에 따라 시군을 나눠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기업지원 노력, 규제 혁신, 투자 유치 성과 등이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가 반영됐다.

인구 7만명 이상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제한을 완화해 기존 공장등록이 어려웠던 섬유업종 기업 144개소의 추가 입주를 유도,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강원 후평, 경남 사천, 전주)로 선정되며

제시는 9개 기업과 4천3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무주군은 안전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사업 추진으로 국비 12억원 확보, 신속처리단 운영을 통해 공장등록 변경 승인 절차를 단축해 조달청 입찰 15억 원 성사 등의 성과를 냈다.

진안군은 창업기업 제품구매 실적 81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2024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되며, 총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우수 시군의 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해 성과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창업·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아

해외 진출부터 일자리 173개 창출까지...성과 풍성
22년 문체부 공모 선정, 5년간 국·도비 94억 투입
콘텐츠 개발·글로벌 판로 개척 등 기업 종합 성장 지원

전북자치도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관광스타트업 발굴, 지역 관광산업 개선, 관광 인재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총 94억 원(국비·도비 각 47억)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올해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을 이어간다. 도는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육성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 글로벌 판로 개

발 계약은 1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베트남 조립사업부와와의 협업을 통해 달랏지역 허브산업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계약을 체결한 ㈜아산은 한화 16억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지역기반 관광활성화 분야에서도 전북 관광기업 5개사의 사업 도약을 지원했으며, 이들 기업은 디지털 전환(누리집, 예약 시스템 등)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한편 도는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tourbiz.jbct.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창업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북 관광산업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기업이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채비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보고회 개최
특례활용 전략사업 등 510건 6천여억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치권 등과 공조 통해 9조6천억 규모 국비 확보 추진

전북자치도는 3차례에 걸쳐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에 6천183억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도는 2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조6천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가짐으로 신규사업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도의회, 오늘부터 11일간 임시회...조례안 56건 등 심의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및 교육·학예 행정 등 질의 및 56건 안전 및 긴급 건의 결의안 심의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26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56건의 안전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24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1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25일에는 국주영은(전주12)·김만기(고창2)·장연국(비례)·강동화(전주8)·최형열(전주5) 의원이, 오는 26일에는 김슬지(비례)·김정수(익산2)·김동구(군산2)·진형석(전주2)·박정규(임실) 의원 등 이틀간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전(조례안 36건 등)을 심사하고,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김관영 도지사, 직원들과 도정운영 추진상황 소통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당부 및 국내 후보 도시 선정 과정 격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1일 3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3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정상 시상과 김 지사의 소통 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의 초청 특강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2036 하계 올림픽

심사 안건은 오는 4월 3일 제4차 분회에서 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미흡한 제도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전북도, 대한민국대표축제 박람회서 K-관광알려

B2B 바이어 상담회 참여, 지자체축제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북자치도가 지난 21일부터 3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14개 시군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개최돼 온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한국전시산업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축제·관광 박람회로, 전국 지자체, 여행업계,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도는 올해 박람회 주제인 '축제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에 맞춰 14개 시군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김은지 기자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치유관광육성법 제정안·게임산업법·자연유산법 동시 통과... "관계 부처와 지속적 협의해 나갈 것"



김윤덕 의원(전주 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동시에 통과됐다.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연이은 쾌거이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 전북 속원이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전북과 강원 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전국적으

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자연유산법'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공개제한구역 출입허가 사유

를 ▲자연유산의 보수와 정비 ▲자연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정국에 통과된 3건의 법안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외닿는 정책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오은미 도의원,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전북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20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진단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3년 기준 도내 청년농 비율은 전체 농가인구 8.4%에 해당하며 21년 10.2%, 22년 9.1%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과 (전)전북자치도 4-H연합회 이지훈 회장의 발제에 이어 오 의원의 사회로 전북자치도 4-H연합회 이강훈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민위원회 김후주 부위원장, 전북연구원 배균기 책임연구위원,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수미 부소장은 "정부의 청년농 지원 정책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초기 높은 투자비용과 부지확보



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농업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스마트팜 창업에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농민 '육성'에만 집중하고 사후 대책은 부실해 청년들은 오히려 수천~수억 원의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지훈 회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주거문제가 크다"며, "금융권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인 전용 대출 상품 도입, 다양한 형

은퇴는 안정되게
노후는 두텁게!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으로 가입,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지원 방법별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요건

약정체결 연도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문의 063-650-7031

전북 기업 ESG 경영 도입 저조…기업 지원 시급

전북상협 288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ESG 도입 21.9%에 그쳐…중소기업 11.3% 불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시급…정책 지원 강화 필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2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실태 및 대응과제 조사' 결과 ESG 경영을 도입한 지역 기업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38.5%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8.7%)과 유통업(11.5%)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 도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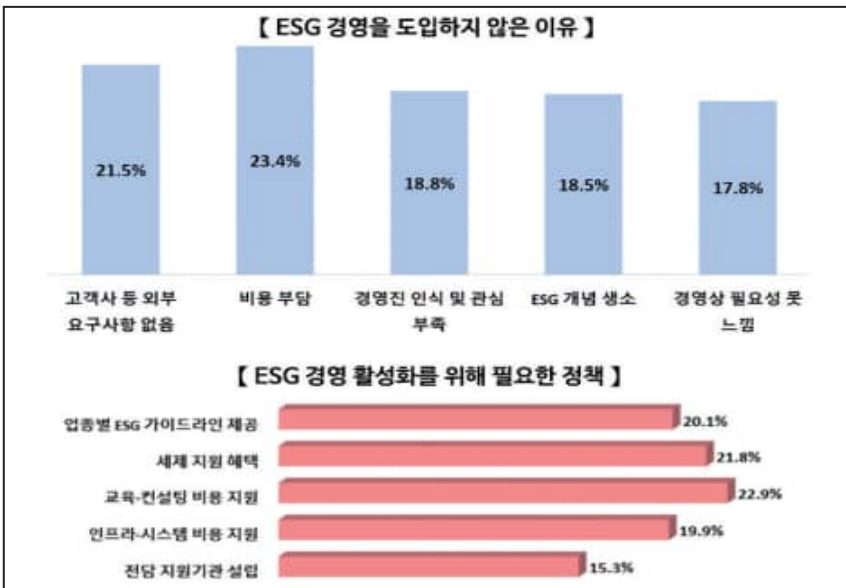
규모별로는 지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87.5%가 ESG 경영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기업들이 ESG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23.4%가 비용 부담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고객을 비롯

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5%, 경영진의 인식 부족이 18.8%, 생소한 ESG 개념이 18.5%, 경영상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17.8%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 시행할 방침이며, 국내 대기업에서도 협력사를 선정할 때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 있고, 투자자들도 ESG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현안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의 확산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기업의 22.9%가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을 꼽고 있으며, 세제지원 혜택 강화(21.8%),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20.1%), 인프라·시스템 비용 지원(19.9%), 전담 지원기관 설립(15.3%) 순으로 지원이 요구된다고 응



답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앞으로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기업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전북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ESG

진단 및 컨설팅, ESG 대응 교육과 설명회 등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ESG에 관한 문의는 전화(063-280-115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준호 기자



한농공 군산지사,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서기수 지사장임직원 30여명 자발적 참여로 300만원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지난 21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탁식은 군산시장 및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산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매년 기부를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서기수 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서기수 군산지사는 군산시와公社의 거버넌스 일환으로 기부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개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한도로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도 이뤄진다. /군산=지승길 기자

농촌진흥청, 전북도 대상 중대립쌀 품종 판별 기술 설명회 열어

기술 정확도 높여 '신동진1' 등 중대립 쌀 순도 유지 및 상표 관리…'신동진1' 현장 실증 교육·종자 1톤 배부

농촌진흥청(청장 귀재환)은 중대립쌀 품종 판별 기술에 분자표지를 추가해 정확도를 높이고, 지난 19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중대립쌀 품종 판별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현장 실증) 담당자 등이 참석해 중대립쌀 품종 판별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정법 시연을 지켜봤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신동진1' 현장 실증 교육이 있었고, 종자 약 1톤 분량을 배부했다.

중대립쌀은 쌀알이 일반 쌀보다 1.3배 가량 크다. 유전적 특성이 비슷한 품종이 많아 판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농촌진흥청은 중대립쌀 품종 판별 기술에 분자표지를 추가해 정확도를 높이고, 지난 19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중대립쌀 품종 판별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중대립쌀 '신동진'과 '신동진1'은 유전적 유사도가 95.3%로 높아 기존 품종 판별 기술로는 구별하기 어려웠다.

품종 판별 기술은 디엔에이(DNA) 분

자표지를 이용해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판별법이다. 연구진은 기존 기술에 카타리브 저항성(qFIR1)과 저장성(LOX3) 관련 유전자를 탐색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추가해 '신동진1'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중대립쌀 품종 간 혼인을 방지, '신동진1'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립쌀의 순도 유지와 상표(브랜드) 관리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을 공유, 중대립쌀 상표 관리에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 판별 기술이 '벼(쌀) 품종 검정 지침(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신동진1' 시험 사업 관계자는 “'신동진1'이 다른 중대립쌀과 쉽게 구분되지 않아 상표 육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품종 판별 기술 개발로 품종 혼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용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지원

6개 은행서 최초 시행, 모든 비대면 거래 지원 전북은행이 유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1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

를 정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계좌개설 등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시행했다. 특히 비대면채널에서도 모바일 외국

인등록증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 모바일앱 측뱅크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개설부터 대출신청까지 가능하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은 최근 외국인종합금융플랫폼 '브라보 코리아'를 출시하는 등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확대로 외국인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대 '동화' 팀, 경진대회서 디지털 농업 혁신 입증

2024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3위 입상… AI 활용 딸기 재배 실증 성공적 수행 '호평'

전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지도교수 양명균)과 ㈜씨더스가 협력해 구성한 '동화' 팀(팀장 양명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24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2024년 7월 예선 단계에서 시작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본선 실증 단계에서 실제 딸기 작물을 대상으로 AI 기반 생육 및 환경 제어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동화' 팀은 치열한 예선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 실제 재배 환경에서 인공지

능을 활용한 딸기 재배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최종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

특히, 팀 구성원 대부분이 전북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와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돼 있어 인공지능 분야에 막 입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한된 경험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창의성을 발휘한 점이 돋보인다.

여기에 ㈜씨더스의 전문 디지털 솔루션과 기술 노하우가 더해져, AI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정에 두 기관 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동화' 팀은 전북대 생물산업기



계공학과 농업 디지털 및 지능화 연구실 소속 5명(양명균, 최우주, 이성환, 김영진, 정도균)과 ㈜씨더스 표현체팀 소속 2명(이도신 팀장, 조광현 주임)으로 구성돼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21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 진행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1일 부안군 백산면 일대에서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등 30

여명이 참여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및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 후 미처리된 영농폐기물을 전북농협 주도로 수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토양 매립 등은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환경 및 농촌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민들이 농촌 방문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농협은 영농폐기물 부실 처리 방지를 위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등 ESG 경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익산시,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

익산시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 초·중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진행한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익산시가 지원하고 원광보건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를 맞으며,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우수한 교육 품질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강화했다. 기초반(Phonics)의 비율을 30%로 조정하고, 원어민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심화반(Start·Build·Master)의 비율을 확대했다.

시는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오는 22일 원광보건대학교 멀티미디어센터 3층에서 수강생과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화상영어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일정과 수강 방법을 안내한다.

화상영어 교육은 주 2회 진행되며 기초반은 1회 25분간 1:2 형태로, 심화반은 1회 50분 1:4 형태로 운영된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청년들 창업센터, '온라인 기반 홍보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는 지역 창업가들의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기반 홍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온라인 소평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유행 흐름에 발맞춰 지역 창업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등 전문 마케팅 콘텐츠 제작으로 창업가들은 고품질의 시각적 콘텐츠를 확보하여 온라인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규모는 총 9개 기업으로, 기본 지원 7개 사항 연계 지원 2개 사항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기존 창업가 중 온라인 시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다. 특히 연계 지원의 경우 상반기 창업아카데미 수료생 중 정부 및 전북도 사업과 자금지원사업 선정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기본 지원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연계 지원은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한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200만 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홍보비를 받게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들 창업지원팀(063-471-1555)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시작

익산시가 내달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익산시는 개별주택 3만 6천여 호에 대한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에 마쳤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복합 주택이다. 단,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612, 561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피너클 어워즈' 수상 쾌거

익산백제 국가유산야행… '아시아야시장 포함한 문화유산야행' 부문 수상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아시아 야시장을 포함한 문화유산 야행'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축제협회가 주관한 2025 피너클 어워즈는 지난 20일 오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15개국 200여 명의 축제·관광 분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각국의 축제·관광 전문가들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다이얼로그'를 주제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는 아시아의 대표 축제도시와 세계유산도시가 선정됐다.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시상식의 중심 주제인 '신야간경제 및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익산이 명실상부한 문화유산 활용 선도도시임을 입증했다.

지난해 4월 백제왕궁(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진행된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문화유산 분야 성과를 흥미롭게 풀어낸 개막식과 짜임새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백제왕궁을 아름답게 수놓은 야간 조명은 행사장을 찾은 3만여 명의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국가유산청 지정 '우수 야행'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 선정 영예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 프로그램… 2025년 아시아피너클 어워드 수상

군산시는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아시아 지부 주최 2025년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이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을 수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로써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2년 연속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으로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여러 축제 프로그램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주최하는 '피너클 어워드'는 축제 올림픽으로 매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시상하는 대회이다.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 유



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국가 유산 해설사가 되어 직접 국가 유산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2024년 군산문화유산야행 기간 동안 구 산세관보관 등 4개 국가 유산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 선정

9년연속·공모사업선정·기업애로해소·안허가신속처리·규제개선 실적우수사례발굴등높은 점수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 기업 애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 규제 개선 실적·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시는 매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발굴에 힘을 기울이

다.

또한,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투자 유치 기반 조성하고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해 친기업 환경을 선도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

총 938m 길이 모래길·마사토길·황토길 등 조성…힐링 명소 기대

정읍시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인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달하 내 유희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맨발걷기길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조성될 맨발걷기길은 총 938m 길이로, 모래길 126m, 마사토길 492m, 황토길 138m, 건강지압길 90m, 어린이맨발길 92m로 구성된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세족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가요촌 달하를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힐링 특화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은 한국가요촌 달하를 활성화하는 주요 프로젝트"라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국가요촌 달하의 매력을 더욱 높ی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옛 우체국 철거…도시광장 조성 본격 추진

오는 6월까지 철거 완료…주민활동 거점화·주변지역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철거공사를 본격 착공하며 해당 부지를 도시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1970년에 준공된 옛 우체국은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2022년 연지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다목적 도시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철거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 관련 인·허가 심의를 거쳤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이후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산림조합, 푸른숲조성사업에 6천2백만원 상당 기탁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 한 살 수도를 위한 미래의 푸른 숲 조성 사업에 힘쓰고 있는 군산시를 향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군산산림조합은 작년 12월에 준공한 철길 숲 1·2구간 유희부지에 6천 2백만 원 상당의 도시숲 조성(현수)을 기탁했다.

이전에도 군산산림조합은 ▲월명동 도시숲 ▲신풍동 작은숲 ▲생말공원 그늘숲 조성 등에도 4억여 원을 현수한 바 있다.

김성현 조합장은 "녹색 친환경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같이 동참하는게 당연하여 기탁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일준 시장은 "기관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어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전체 사업 구간은 사정산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총 2.6km로 활령·여유·추억·어울림 등 4개 테마 숲으로 꾸며진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문화마을29 '익산을 부탁해' 참가팀 모집

익산시가 시민 주도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마을29-익산을 부탁해' 참가팀을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익산을 부탁해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실행하는 시민 주도형 사업이다. 기획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 과정이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명 이상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되고, 주제 제한이 없어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사업의 기획 내용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며,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3-67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이 익산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마을29를 통해 ▲삼성동 문화둘레길 사업 ▲용포 골개나루 마을투어 게임 ▲같이 놀자 골개 한바퀴 ▲지역주민이 모여 소통하는 '춘포 더하기 축제' 등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최준호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어르신 복지 혜택 강화

경로당 현장 행정 적극 추진 불편 사항 파악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부안군은(군수 권익현)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17일 변산면과 하서면을 방문해 각 지역 경로당 3개소를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불편 사항을 점검했으며 20일에는 진서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경로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의 불편 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익현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경로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군수가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들어줘서 감사하다”며 “경로당이 더 편리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 중심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들의 편안한 여가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현장 행정을 지속 추진해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

덕산제 일원·고창읍성 등 생태축 연결…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보존

고창군이 도시확장으로 단절됐던 생태축을 복원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존에 나섰다.

지난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읍 덕산제 일원에 ‘고창읍 도시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사)한국생태복원협의회, 생태환경보전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유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 참석했다.

강호항공고 교사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민간 유공자 표창, 테이프커팅, 생태축건기 등으로 진행됐다.

‘도시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은 도시확장에 따른 도로개설로 단절된 덕산제 일원과 고창읍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일원의 생태축을 연결해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덕산제 일원은 멸종위기 2급인 대모잠자리가 다수 발견된 곳으로, 이외에도 노랑때까치, 줄장지뱀, 가시연

꽃 등의 서식지가 마련돼, 다양한 동식물의 적합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덕산택지개발지구가 정비되면 덕산제 일원과 덕산지구는 다양한 동식물과 고창군민의 자연과 생활 환경 등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시 생태축 복원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태축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제4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열어

어린이 및 청소년 33명으로 구성, 의회 활동 통한 정책 참여…아동 권리증진 목표로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제4대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배지 수여, 활동다짐문 선서, 연가계회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서 의장은 배지를 수여했으며,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은

활동다짐문 선서를 통해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함께 공유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와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 33명으로 구성된 의회 활동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몸소 체험하는 등 아동의 권리증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로 제4대를 맞이하는 어린이·청

소년 의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회 아카데미,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우리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정 현안과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상하농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맞손

치유문화 예술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과 상하농원(대표이사 권태훈)이 지난 20일 치유문화 예술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상하농원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연계 추진, 군민과 관광객의 치유문화예술 향유 증진,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이 이뤄진다.

상하농원이 보유한 공간과 콘텐츠 등 다양한 기반을 중심으로 치유문화 도시 사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하농원의 공유사무실 거점 공간을 활용해 고창을 찾는 ‘위케이션 사업’ 참여자에게 고창에서의 특별한 치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성환 상하농원 운영이사는 “상하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상하농원이 지난 20일 치유문화 예술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원이 가진 자연과 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더욱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고창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창환 고창군문화관광재단 상임이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하농원의 인프라와 고창의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게 돼 기대감이 크다”며 “치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내달 19일 개최

간척지 토양해풍…품질 뛰어나, 감자 애호가들 기대 만발

간척지 감자 최대 주산자인 김제시 광활면에서 제15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열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영욱)는 ‘제15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를 오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김제시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5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감자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전국 각지의 감자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자 출하 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감자 캐기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주요 프로그램은 감자 비누 및 머그컵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감자네컷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햇감자 요제’가 열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임영욱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관련 전북도 편향성 규탄

“도, 3개 시·군 상생 및 균형 발전 위해 중립 입장 견지해야” 강조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군산시의 정치적 선동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중립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엄정 중립 촉구’ 결의안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한 오승경 의원은 “군산시가 정부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와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군산시의 입장에 힘을 실

어주는 편향된 행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된 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신항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형태의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인접한 3개 시·군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엄정한 중립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결의문은 해양수산부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이 소속된 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5년 군민대상 후보자 검증 실시

부안군은 2025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군민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해 그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 동안 4개 분야 7명이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접수를 마쳤다.

군민검증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공개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와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민대상은 현지조사와 군민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군민대상 수여일은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개막식날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민대상은 모든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그에 걸맞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후보자가 추천됐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선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창군과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치호)가 지난 20일 관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제1회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창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화차는 송중현 강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길라잡이’를 주제로 각종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이를 실질적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뤘다. 고창군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분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능력 향상과 경제제거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소방서, 직원들 자발적 모금

고창사랑기부금 1643만원 기탁

고창소방서(서장 임정욱)는 지난 21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고창사랑기부금 1643만원을 고창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창소방서 직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고향 사랑의 의미를 담아 전달됐다.

또한, 이번기부는 직원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소방서의 지역 사회 책임을 실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임정욱 서장은 “고창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창군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금이 고향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임산부·예비부모 대상 ‘행복한 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창군이 임산부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고창맘’ 프로그램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프로그램(임산부 건강교실, 임산부 요가교실, 1:1 모유 수유 클리닉)에 부부요가,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힐링원에 활동이 추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은 올해 상·하반기 확대 운영으로 부모들이 영유아 응급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능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는 모자보건실(560-87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개별주택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 운영…내달 30일 결정·공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지난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만 3천여 호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주택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 의견서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등을 통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춘향제, ‘차박’으로 캠핑 감성 더하다

매해 부족했던 숙박 문제 대응책…임시 차박 6곳, 340대 수용
캠퍼들에게 무료 개방 및 편의시설 제공…내달 24일까지 사전 예약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한다.

최근 94회 춘향제가 역대 가장 많은 11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글로벌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임지를 다진 가운데, 매년 부족한 숙박 문제에 대응하는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한다.

차박 공간은 모두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교통산 국민관광지, 종합 스포츠타운, 합파우 소리체험관, 요천 생태공원, 금암공원 근처 공터, 유채꽃밭 근처 공터 총 여섯 곳이며 일반 승용차량과 카라반, 캠핑카를 포함해 모두 34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임시 차박공간은 정식 취사 이용시설과 샤워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화장실 개방과 필요시 임시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춘향제 홈페이지(chunhyang.org)에서 임시 차박 공간의 위치와 신청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매년 부족한 숙박 문제에 대응하는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한다.

방법, 신청 연락처, 인근 목욕탕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4일 18시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제95회 춘향제의 밤을 이색적인 공간에서 보내길 희망하는 캠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95회 춘향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되며, 다양한 전

통문화 체험과 공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프로그램과 다본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한 F&B 운영,유채꽃밭 신규 조성 등으로 차박을 하며 석양을 바라보며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국가암검진사업 우수상 수상

제18회 암예방의 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제 18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해 지난 21일 웨스트민 조선포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암검진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암예방사업 등 7개 분야에서 공모접수를 받아 1차 시·도(지역암센터)·국립암센터에서 분야별 2번 이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2차 국립암센터에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으며,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암검진사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남원시의 체계적인 연령별·암종별 맞춤 검진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성과가 반영됐다.

또한 각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취약계층 건강검진 직접 관리를 당부하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중심의 '지역 책임제'를 운영, 밀착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올해 남원시보건의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암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검진 연령대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대별 맞춤 홍보를 통해 검진 참여를 유도하고, 연말에 몰리는 검진을 분산하기 위해 상반기 집중 홍보와 개별 안내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암 관리·건강검진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전북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포상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 및 암 관리 사업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항목을 평가했으며, 순창군의 경우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2023년 우수기관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암 검진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보건지소 28개소에 대변통을 상시 비치하고 암 검진 완료자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1:1 맞춤형 전화와 암 검진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출장 검진을 시행하는 등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밖에도 군민 무료 검진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암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세계 물의 날 기념 만경강 일원 ‘줍깅’ 캠페인

완주군이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중요성 및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자 봉동읍 구만리 만경강변 일원에서 줍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년 3월 22일인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보전하기로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정부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군도 유관기관과 환경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을 코로나19 수행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해 왔

다.

21일 진행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줍깅 행사는 전북지방환경청과 완주군이 공동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의 후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7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슬로건 아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봄철 관광 프로그램 ‘광한루OnePick크닉’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18일간 광한루원에서 봄맞이 남원 맞춤 관광 프로그램인 ‘광한루OnePick크닉·봄! 다시 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3회(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5시, 야간 6시~9시) 운영되며, 각 회차별 50팀씩 총 150팀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피크닉 세트(뚜치터, 테이블, 조화, 담요 등)와 간식 세트를 제공받으며, 광한루원의 아름다운 봄 풍경 속에서 감성적인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특별한 한글 과자가 포함된 ‘몽퐁이 피크닉 세트’(5,000원)와 몽퐁이 피크닉 세트에서 베이글이

추가된 ‘춘향이 피크닉 세트’(10,000원)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행사 첫 주(3월 25일~30일)에는 한국관광공사 ‘2025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요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린다. 또한, 광한루원 피크닉존 내에서는 비눗방울 놀이, LED야광봉, 한글과자를 활용한 이벤트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전화 예약(25팀)과 현장 예약(25팀)으로 나눠 진행되며, 예약은 홍보자료의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퀵스타트 면접수당, 5만원으로 인상…온라인 신청 지원

남원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관내 기업체 등에 면접시 지원하는 면접수당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작년부터 남원퀵스타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면접 수당 지원사업은 그간 사업단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남원퀵스타트사업단’ 누리집(namwonquick.or.kr)을 구축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회 3만 원 지원하던 면접 수당을 1인당 1회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남원시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구직자에 해당하며, 신청자는 구직등록확인증,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법인·기업·개인사업체에 면접 전 남원퀵스타트사업단을 통한 취업 상담 후 알선,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남원퀵스타트사업단은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사)전북산학융합원이 사업을 맡아 수행 중이다. (문의:063-625-0882)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농기센터서 전북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협의회 열려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들이 완주군에 모였다.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주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회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거점센터로 선정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 있도록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시범 사업이 완료돼 의미를 더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회는 도·시군간 현안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의회로 최준열 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 재배 현황과 시군별 당면 영농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특수사업 추진계획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에는 완주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시찰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맞춰 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완주가 기후변화 거점센터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해 우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 ‘수소연구실’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의 청소년센터 고래가 지역의 핵심산업인 수소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센터 고래는 지난 18일 완주군 수소충전소 방문을 시작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소도시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 ‘여기는 고래, 수소연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수소충전소 방문으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과 기술의 혁신을 확인하고 미래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2일에는 수소 과학 영화를 관람해 미래 수소발전 방향을 상상해보고, 수소 과학실험을 통해 직접 체험활동을 벌였다. 오는 29일에는 그동안 배웠던 수소 에너지를 복습하기 위해 수소 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남 교육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이 수소도시 완주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 미래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계절근로자 환영식…농업 인력난 해소 기대

올해 40명 채용…지난해 3천여명 활동, 농가 만족도 90% 이상 성공적 정착

순창군이 지난 20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성철 순창농협 조합장, 지역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올해 순창군에서 선발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40명으로, 이들은 8개월간 지역 내 농가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들은 지난 2월 라오스 현지에서 엄격한 면접 과정을 거쳐 채용됐으며, 국내 입국 후에도 기초 안전교육과 농업 실습을 이수하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지역 농가에서 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일손을 보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순창군이 지난 20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개최했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순창군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 농업계에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인원 3,1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786농가에서 활동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농가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집계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입증했다.

한편,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이용할 경우, 1인당 하루 이용 요금은 10만 원이며 근로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업 2일 전까지 전화(010-7671-6206) 또는 공식 웹사이트(sunchangwork.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대한민국 대표 수소도시 부상 ‘지자체 방문 러시’

완주군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선두 주자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도와 충주시 관계자들은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완주군을 방문해 수소산업 육성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완주 수소도시’ 주요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통합운영관리센터와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현장 답사하며 수소도시와 관련 산업의 확장·연계성 등 미래 성장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군은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등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유일 수소 인증도시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3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대만 국립연구연구소 등 해외 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남원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의 현장학습으로 완주군 수소 전주기 클러스터(완주 수소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자체 간 활발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완주군을 넘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비롯 수소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순창군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8,83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순창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군은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면 전북자치도가 심사 후 선정해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순창군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리브인순창(Live in Sunchang)’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 사업은 4대보험 미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총 7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순창군의 관광자

원과 특산물 등 자연·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귀농·귀촌과 생활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업·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은 3~4월 중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 암예방정책성과…대통령 표창수상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전북도 우수 성과 달성…김정희 출산지원팀장, ‘암 예방의 날’ 표창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체계적인 암 예방·관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정희 전북자치도 출산지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도가 암 조기검진 독려, 의료 지원 확대, 암 생존자 통합 지원 등 실질적인 암 예방 정책을 추진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또한, 전주시 김가연 주무관과 익산시 최지혜 주무관, 대자인병원 최병관 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남원시는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내 각 기관이 함께 이룬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는 국가 6대 암 검진사업, 암환자의



지난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정희 전북자치도 출산지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료비 지원, 지역암센터·암생존자통합지센터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암 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24년 도내 암 검진 수검

률을 42.88%까지 끌어올려 전국 평균(42.03%)을 상회하며, 광역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검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혜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임직원들 530만 원 기탁… 지난해보다 기부금 확대 부안 지역 활성화·주민 복지 향상 기여 의지

부안군은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 임직원들이 53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부안지사는 지난해에도 37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올해는 더욱 뜻깊은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확대하며 부안의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부안=신상수 기자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매도

① 농지 매도 대금

② 직불금 매월 50만원/ha
*최대 200만원(4ha)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① 농지연금 매월 최대 300만원

② 농지 임대료

③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차액)

② 직불금 매월 40만원/ha
*최대 160만원(4ha)기준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

가입요건

10년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79세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전농지 및 경지 정리된 비전농지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1577-7770



군산시 드림스타트, 사랑이음봉사단 활동 실시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군산희망티움봉사단(회장 김영림)이 ‘1분기 사랑이음봉사단’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올해 1분기 사랑이음봉사단 활동은 취약계층 30가정에 영양가 있는 밀반찬 3종을 조리·배달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군산희망티움봉사단은 지난 달 10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반찬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가정의 건강한 식사 제공을 돕고, 대상가정

부모들이 직접 밀반찬을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어 의미가 더욱 깊다.

특히 군산희망티움봉사단원 10명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균형 잡힌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건강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활동이 가정 내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의 자립적인 식사 준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최대철 배우, 무주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 기탁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에서 오천수(둘째) 역으로 출연 중인 최대철 배우가 지난 21일 무주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최대철 배우는 무주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포럼(배도라지즙, 홍삼, 천마제품 등 건강식품 생산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무주와 인연을 맺었으며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무주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했다.

황인홍 군수는 “진숙한 이미지와 깊이 있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대철 배우가 무주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취임식 개최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에서는 지난 21일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12개 여성단체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전임 회장(인영희)에 대한 감사와 신임 회장 축하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남원시 여성단체의 발전 방향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짐이 이어졌다.

14대~15대 회장을 역임한 인영희회장은 4년간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기여하였고,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 안전망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

두었다.

16대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이은진 회장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만든다”라며 여성단체간 상호협력과 결속을 강조하였고, “2024년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남원시를 여성친화·온몸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였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새로 취임한 이은진회장과 임원진들을 축하하며 “우리 회원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원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동상면 주민들, 고종시 시조목 지키기

꽃감으로 유명한 완주군 동상면이 고종시 시조목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고종시는 예로부터 씨가 없고, 맛이 뛰어나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일 동상면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경태)는 식목일을 앞두고 동상면민운동장에서 봄맞이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식목 행사는 동상 고종시 시조목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서 고종시 시조목에서 직접 접수를 따라 고읍나무에 접목

한 접묘목을 동상면민운동장 전면 언덕에 식재했다. 묘목 식재 후에는 기념식도 세웠다.

현재 동상면 꽃감 농가는 모두 68농가로 고령화와 감 수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경태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상면을 대표하는 고종시 시조목의 수량이 높아 이를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 식재한 접묘목이 잘 자라 고종시 시조목의 명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고창군 공도협회, 성송면 정균섭 씨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 공도협회(회장 홍민표)와 성송면 정균섭씨가 지난 21일 고창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공도협회에선 315만원의 성금과 백미 10kg 50포(15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고창군 공도협회 홍민표 회장은 “우리 공도협회는 나눔의 화살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곧게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송면 정균섭씨는 5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였다. 정균섭씨는 “나누는 기쁨만큼 소중한 건 없다”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뜻을 전달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고창군 곳곳에 희망이 되어 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금산면 어부바봉사단, 3월 '마을공동밥상' 운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신은학)과 함께 ‘마을공동밥상’ 탕수육 도시락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밥상 사업’은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어르신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어부바 봉사단은 홀로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 400세대에게 탕수육을 전달했다.

신은학 어부바봉사단장은 “이번 영양만점 탕수육은 어부바봉사단 회원들이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정성스레 준비하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도시락 한 끼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철 금산면장은 “금산면 어부바봉사단의 매월 지속되는 나눔 활동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1인 청장년세대, 조손가정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k-water 전주권 지사, 군산시 옥구읍에 생필품 기탁

옥구읍 행정복지센터는 K-water 전주권 지사에서 노사 공동(지시장 신창식, 노동조합 지부장 박승혁)으로 쌀(10kg) 30포와 물 화장지 30세트(2백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옥구읍 지역은 장래 새만금 지역 수돗물 공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으로 현재 K-water 전주권 지사에서 연결 수도관로, 가압장, 배수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전주권 지사 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구입했다.

기탁된 물품은 옥구읍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약 3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기탁식에 참석한 K-water 신창식 전주권 지사장은 “옥구읍을 시작으로 장래 새만금 지역의 원만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건설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一事一言〉



내란의 빠른 종식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2)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자신의 부인이 처한 정치적 사적인 위기, 즉 ‘주관적인 비상사태’를 ‘객관적 비상사태’라고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크고,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조차 설득하지 못할 주관적 결정이었다.

계엄 포고령 1호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불법적인 조항에서 그의 주관적 위기의식, 야당에 대한 적대적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현재에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옹색하게 변명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최종 포고령을 손질하면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았다”라고 실정법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약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점들을 무시하고 ‘주관적’ 의지로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약간의 절차적 하자를 다 압도할 수 있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야당이나 모든 비판 세력의 정치활동을 제압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의 헌법위반 여부는 현재가 판결할 것이고, 내란 행위의 불법성은 이후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결은 사실 판사들의 헌법 해석의 영역이므로, 최악의 경우 이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한 것처럼 그

냥 몇 사람의 ‘소신’에 의해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헌재나 헌법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하고 거의 압도적 다수의 법률가들이 예상하는 윤석열 탄핵 결정과는 배치되는 몇 재판관의 ‘소신’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한국은 이제 법치보다는 정치적 의지, 즉 적나라한 권력투쟁만이 난무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국민들은 윤석열이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거짓말과 억지 논리를 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국회 의원들과 그가 임명한 국무위원, 검찰, 경찰, 주요 국가기관장들은 실정법보다는 정치 논리로 이 상황을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내란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들은 이미 현재, 공수처 등의 법의 집행을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들과 아스팔트 우익들은 향후 수사나 법원의 모든 조치를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상식’은 이들의 행동을 주저 앉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50대 중반 이상의 군사정권을 겪은 한국인들은 사실 법과 도덕보다는 권력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사 IN>(2025. 2. 25)의 조사에 의하면 2000명 응답자 중

17%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20% 정도에 달한다. 윤석열 등 내란 주범들이 대통령의 통치권이 법 위에 있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도 이들이 20% 정도 국민의 생각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변화, 군대의 변화는 이들의 머리와 몸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 이들이 민주화 이후 개정된 계엄법, 즉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이들이 개정된 계엄법에 무지해서라기보다는 군사정권 시기의 아비투스(가)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데서 온 무의식의 결과일지 모른다.

윤석열이 계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도덕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자신의 카르텔 내의 사람들, 동문·동료, 거래관계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도덕성과 불법성, 그리고 정치성은 한국 검찰조직의 특징이기도 하다.

과거의 검찰,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가 그렇게 살았듯이 그들은 편법과 속임수를 쓰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이 곧 선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검사와 공안당국도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고문이나 간첩 조

작을 하고서도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으며, 이들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삶과 가정이 처절하게 파괴되어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고 반성이나 사죄를 한 적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권력정치의 행위자들 혹은 극우 파시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적을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모든 폭력은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은 취임 후 거의 모든 담화에서 ‘적’을 지목했고, 언제부터인가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을 설정하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을 설정한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처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노상원은 그들에 대한 체포나 구금, 그리고 폭사나 ‘수장’까지 구상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헌법재판소, 국민의애크는 함성 외면할 텐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깃발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현재가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오전으로 전격 결정된 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는 현재 스스로 밝혔던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정이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하는 처사다.

윤석열 탄핵심판은 단순한 절차적 사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헌 문란을 자행한 내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계엄령 발동을 위한 준비 정황과 위헌적 절차, 헌법기관에 대한 조직적인 침탈은 이미 주요 증거로 확보돼 있다. 국회가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모든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는 충분히 검토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는 침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현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윤석열 탄핵소추안보다 늦게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이 먼저 잡혔다. 이는 현재가 정치적 고려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내란 세력은 현재의 침묵을 악용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하’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극우 세력은 야당 의원과

시민들에게 달걀 테러와 폭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가 침묵할수록 그들의 폭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 부를 수 없다. 현재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곁을 꿰으며 현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타협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판결이다. 현재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뒤로 미루고 시간을 벌여주려는 듯한 행보는 국민적 분노와 좌절을 키울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은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헌정질서 파괴의 중심에 섰다. 그를 탄핵하고 파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는 길이다.

현재가 이 명백한 책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선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현재가 미적거릴 명분도, 이유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나 내란세력 달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윤석열의 파면을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헌정질서의 희망을 안겨주는 길이다.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법정에서 있음을 자각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누구 위에 군림하는 자도 예외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하’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극우 세력은 야당 의원과

문
화
재
열
전

월명암 대혜보각선사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목판본, 사찰본
-지정일 - 2022년 9월 1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김제시 금산면 모악 7길 128-27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인쇄인 김은주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완주의 문화 랜드마크,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문화단체 집적화로 시너지효과 극대… “문화 중흥 이끈다”

완주군의 ‘복합문화지구 누에(nu-e)’가 완주군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군청사 내에 위치한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과거 전라북도 잠업시험장(잠종장)이었던 곳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1914년 잠업강습소로 설립된 이곳을 2011년 농업기술원 종사사업소가 부안으로 이전하면서 폐쇄됐으나, 완주군청 이전과 발맞춰 문체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산업통을 통해 복합문화지구로 거듭났다.

현재 누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완주군 주요 문화단체들이 ‘누에’로 이전을 마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제2의 문화 중흥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한국예총 완주지회, 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등 완주군 주요 문화단체가 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누에 문화단체들이 주축이 된 ‘예술로 충전’ 행사를 열고 클래식·관소리·재즈·라이브드로잉·댄스·강연·문화체험 등 완성도 높은 4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누에아트갤러리를 통해 완주군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많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으며 누에 아트 공간에서는 금속, 도예, 목공, 염색 등을 통해 활발한 문화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100년전 찬란한 한반도 철기문화 태동지 마한역사문화관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육

상의 한산대첩 국가 사적 ‘웅치 전적’을 전북특자도, 진안군과 함께 웅치명품쇼 조성하고 기념행사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남계리 유적 출토 백자 사발지석 보관·전시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려나갈 예정이다. 국장 권삼득의 역사·문화적 가치, 전통한지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로 빛나고 경제로 도약하는 수소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역사를 발굴하고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주민 생활 속에서 누리는 역사자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문화예술 실현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

완주군의의회